

“아이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세요”

태어나서 3세까지는 매일 매일이 신체·정신적인 발달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아이들에게 적절한 자극을 주는 것은 막 도약하려는 아이에게 탄력을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은 부모가 느끼는 행복이 아닌 아이가 느끼는 행복이어야 합니다.

아이가 행복해지는 교육은 우선 아이의 발달 상황과 환경에 맞춰 그때 그때 아이가 필요로 하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공통된 정방향으로 발달하지만 개인의 능력에 따라 정 방향을 벗어난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특성에 적합한 과제를 원합니다. 만일 인위적으로 지식을 주입시키거나 능력에 벽찬 과제를 주었을 경우, 억지로 먹은 밥이 체하는 것과 같이 발달에 있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이런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 부정적인 개념을 먼저 배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교육의 두 번째 조건은 아이와의 상호 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마와 아이가 주고받는 상호적인 애정 작용은 애착을 형성하게 되고 이것은 언어나 인지, 사회성, 신체 발달 등 전반적인 발달의 기초가

됩니다. 더욱이 생후 6개월부터 두 돌까지는 애착 형성시기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에 신경 쓰면서 아이가 하는 신호나 반응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민감한 엄마의 반응은 아이의 또 다른 반응을 유도하게 되고 이런 관계가 반복된다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애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교육하는 것에 있어서 정답은 없지만 원칙은 있습니다. 아이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세요. 아이가 필요로 하는 환경은 엄마가 만들어 줘야 하지만 그 환경을 주도하는 주인공은 바로 아이 자신입니다. 엄마가 영재를 만들겠다는 행복한 환상을 꿈꾸는 동안 아이의 마음속에 자리한 행복 시계는 멈춰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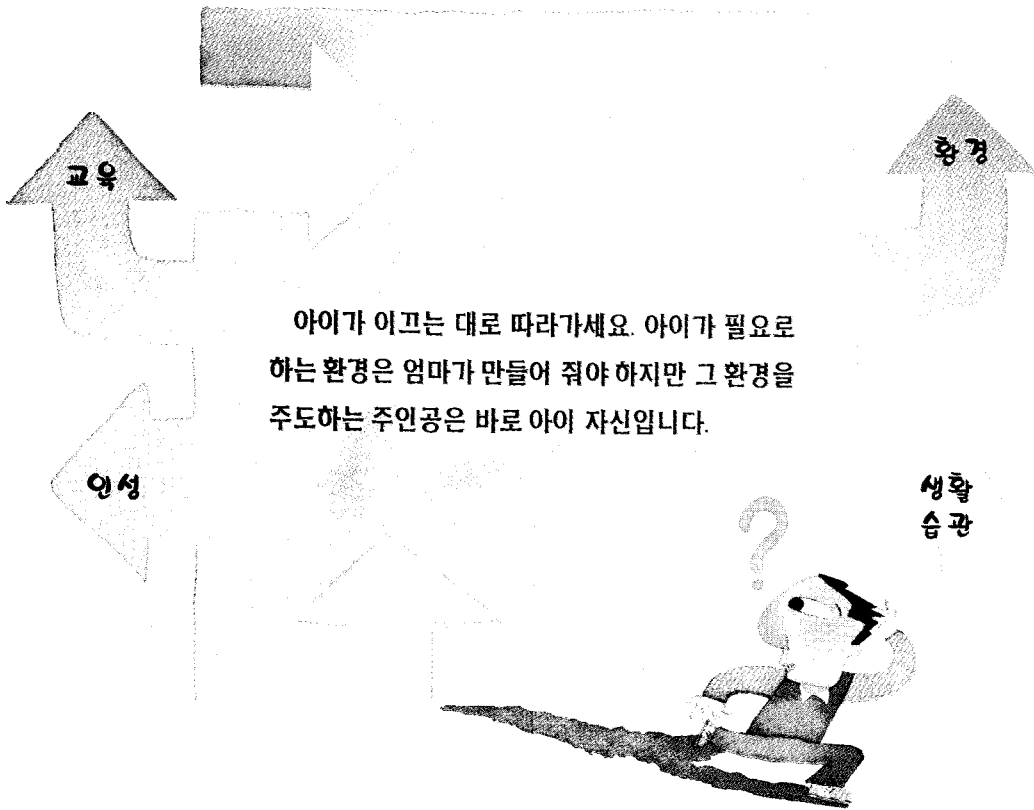
“올바른 생활 습관에 대해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세요”

독일을 비롯한 대부분의 교육 선진국들을 보면, 유아 교육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일원화된 소관 부처를 두고 그 곳에서 유아 교육 정책의 기반을 세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는 똑같은 대상의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에 다른 나라와 같이 일관성 있는 교육을 적용하기 힘듭니다. 체계가 이루어지지

우리아이 어릴 적에 ‘꼭’ 가르쳐야 하는 것

부모넷 www.bomonet.or.kr



아이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세요. 아이가 필요로 하는 환경은 엄마가 만들어 줘야 하지만 그 환경을 주도하는 주인공은 바로 아이 자신입니다.

않는 교육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문제가 파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우리 교육의 현실을 잘 알고, 그 현실에 무조건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아이들에게 교과와 기능만을 가르칩니다. 유아교육기관에서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본 생활 습관이나 민주 시민 교육입니다. 남에게 배려할 줄 알고,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가 몸에 배도록 습관을 들이는 교육입니다. 흔히 '습관'을 제 2의 천성이라고 말하죠. 어렸을 때 특히 유아기에 이런 습관이 길들여지지 않으면 그대로 성격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는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유아교육기관이 이렇게 본분을 못 찾고 있는데에는 부모의 책임도 한 몫 합니다. 읽기와 쓰기, 언어, 미술, 음악 등 과목 학습에만 집착한

나머지 아이가 그 기술을 잘 습득하면 다양한 보상으로 칭찬을 합니다. 하지만 인사를 잘 했다가, 동생을 돌봤다가, 엄마의 심부름을 했을 땐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성의 없는 칭찬한 마디로 끝내버리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은 칭찬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잘 하는 부분을 격려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존댓말을 하지 않는 아이에게 반말이나 상소리를 하지 말라고 혼을 내기보다, 존댓말을 자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입니다. 존댓말이 늘어나면 반말이나 상소리는 자연스럽게 줄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올바른 생활 습관에 대해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세요. 부모의 작은 칭찬이 아이들의 인성을 바르게 키워주고, 나아가 우리 교육 현실의 문제도 메워줍니다. **이재민**